과제문③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한 젊은이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한 뒤 보수로 금덩이를 받았어요.

고향으로 가던 길에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이튿날 아침, 주막을 나선 젊은이는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이가 돌아보니 주막 주인이 뛰어왔어요.

“당신이 금덩이를 두고 갔기에 이렇게 쫓아왔소.”

젊은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갔어요.

조금 가다가 강가에 다다르니, 한 아이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구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품속의 금덩이를 꺼내 높이 쳐들고 외쳤어요.

“저 아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더니 강물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해주었어요.

젊은이는 약속대로 금덩이를 그 사람에게 주었지요.

이 때,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바로 주막의 주인이었지요.

“정말 고맙소. 내 아들을 구하려고 귀한 금덩이르 남에게 주다니…. ”

주막 주인이 고맙다고 하자, 젊은이가 말했어요.

“아무리 금덩이가 귀해도 사람 목숨에 비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아이를 구했으니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한 셈이지요.”

課題文③

 より大事なもの。

ある若者が、長い間一生懸命仕事をした報酬として金塊をもらいました。

故郷に帰る道の途中にある酒幕（チュマク※）で、一晩泊まる事になりました。

翌日の朝、酒幕（チュマク）を出た若者は後ろから自分を呼んでいる声を聞きました。

若者が振り返ると、酒幕（チュマク）の店主が走って来ました。

「お前さんが、金塊を置いて行ったから、こうして追いかけてきたぞ。」

若者は、感謝の気持ちを伝えて、また道を歩き始めました。

少し歩いて川岸に近づくと、一人の子供が溺れてもがいていました。

しかし、子供を助けようとする人は誰もいませんでした。

泳げない若者はから金塊を取り出し、高く持ち上げて叫びました。

「あの子を助けた者に、この金塊を渡そう」

すると、一人の男性が服を脱ぎ捨て川に飛び込み子供を救ってくれました。

若者は約束どおり金塊をその人に渡しました。

この時、子供のお父さんが走ってきました。なんと、酒幕（チュマク）の主人でした。

「本当にありがとう。私の息子を助けるために金塊を他の人に譲るなんて…. 」

酒幕（チュマク）の主人が感謝を伝えると、若者が言いました。

「いくら金塊が大事でも人の命と比べられますか？それで、子供を助ける事ができたので、私はむしろ良いことが出来ました。」

※酒幕（チュマク）：昔の韓国にあったご飯やお酒を売っている宿屋。